



보인다 내 고향, 행복을 품는 곳

한가위 때만되면 얼굴은 벼 처럼 몸도 마음도 고향으로 기울어집니다. 누렇게 익어가는 들녘을 바라보며 가을걷이 보다는 잔뜩푹과 먹거리가 풍성한 '추석 때'를 손꼽던 시절은 입가에 웃음을 머금게 합니다.

고향은 떠나도 떠나도 마르지 않는 추억의 '회수품'입니다. 밭이 시리도록 맨발로 뛰어다니던 논두렁과 아름답디 당산나무 그늘에서 꿈을 그리던 그 시절 추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강이를 걸어올리고 하루 종일 손발이 붓도록 미꾸라지와 각시붕어를 쫓던 마을 앞 실개천은 또 어떤가요.

복숭아 솜털 같은 콧수염이 휘날릴 정도로 냇가에서 첨벙대던 천둥벌거숭이를 뒤로 하고 어머니는 고된 삶의 푸념과 자식걱정을 비비고 빨고 널었지요.

그래서 이지러진 달이 차오르는 한가위 즈음에는 누구나 까닭없이 가슴이 울렁거리는 '앓이'를 시작하곤 합니다. 젊은 아들딸 낳아 잘기르고 있는 자식들을 마음에서 놓치 못하는 그 어머니 생각이 세월에 둔탁해진 가슴을 뚫고 올라옵니다.

세월보다 빨리 내려앉은 흰머리와 갈수록 깊게 패이는 얼굴의 주름은 영원히 깊어지지 못할 마음의 빛입니다.

한가위라 못내 서운한 생각에 큰 맘먹고 준비한 선물을 뒤로 물리시고 손주 녀석들 품에 안고 마냥 기뻐하시는 부모님의 모습에 질로 고개가 숙여지는 것도 이맘 때입니다.

눈물이 속 빠지도록 회초리를 드시던 아버님의 등이 굽어보이고 걸음이 느려지는 것을 바라보며 불효를 떠올리게 되는 것도 추석이 주는 또 다른 각성입니다.

한가위는 사슴피리 처럼 깨어져 살아온 살붙이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재수혈 받음으로써 세상에 맞설 힘을 증진하는 '마음의 병상'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 때문에 한가위 대목에는 "그래 어여 온나"라는 부모님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아 저도 모르게 고향집으로 걸음을 재촉하는 지도 모릅니다.

/글=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사진·담양 용면=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한가위 특집 지면 안내

- 10면 올 추석 '환경 추석'으로
- 11면 귀성·귀경길 교통정보
- 12면 추석 차례상 차리기

- 13면 추석 연휴 가볼만한 곳



- 17면 추석 극장가



- 18면 추석 TV 안방극장
- 19~24면 추석 TV 프로그램